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지정학적 긴장 vs. 반도체주 반등..미국증시 혼조

- 미국증시 혼조: 다우 -1.09%, 나스닥 +0.20%
- 미국-이란 공습 재개, 국제유가 급등
- FOMC 의사록 “몇몇 위원 금리 인상 검토 언급”

Summary

미국증시 혼조: 다우 하락, 나스닥 반등

미국증시는 7월 8일(현지시각) 혼조 마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며 거친 메시지가 오가고 실제 군사 공격도 오가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연준의 긴축적 움직임에 대한 전망을 반영한 국채 금리 상승 등의 경로로 시장에 부담을 안겨줌. 다만 전일 급락했던 반도체주가 일제히 반등한 영향으로 나스닥 지수는 반등권에 마감.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1.09% 하락한 52,348.39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0.28% 하락한 7,482.71에 거래를 마칩. 나스닥 지수는 0.20% 상승한 25,870.65에 마감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0.27% 상승한 29,252.56에 거래를 마칩.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88% 하락 마감.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 VIX는 4.77% 추가 상승해 16.90을 기록.

(다우지수 -1.09%/ 나스닥 +0.20%/ S&P500 -0.28%/ 러셀2000 -0.88%)

트럼프 “중전 MOU 끝난 것 같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에 대한 잇따른 공격으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 이란 역시 바레인과 쿠웨이트 내 미군 시설 85곳에 대한 타격을 주장하고 맞서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8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더는 이란과 협상하고 싶지 않다. MOU가 끝난 것 같다. 이란 지도부는 쓰레기이다. 그들을 상대하는건 시간낭비”라며 “오늘 밤 그들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는 등의 거친 언사를 이어 긴장감을 높임.

장 마감 이후 미군은 실제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개시함. 미 중부사령부는 “최고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미 중부사령부 병력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 전력을 추가 약화하기 위한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힘. 이란 역시 반관영 파르스 통신 등을 통해 이란 남부 요충지 반다르아바스와 시리크 일대에서 여러 차례 강력한 폭발음이 울렸다고 보도.

지난달 체결된 양해각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의 상선에 대한 공격 중단, 그리고 미국의 이란산 원유 판매 허용이 이번 충돌 과정에서 모두 어그러진만큼 양측의 합의 지속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일부 존재.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강경한 어조를 유지하는

와중에도 “이란과의 전면전 장기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등 이번 사태 역시 상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전술전략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시각이 보다 우세함. 또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제 막 안정을 되찾은 유가가 다시 폭등해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이란 역시 장기에 걸친 경제 제재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만큼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을 원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방향성이 그러하더라도 중간 중간 마주하게 되는 이번과 같은 이벤트들은 시장 내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FOMC 의사록 “몇몇 위원, 금리인상 검토 언급”

지난 6월 진행됐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공개됨. 정책 금리 격인 연방 기금 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던 회의였지만 참석자들은 대체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 의사록은 참석자들이 최대 고용 관련 하방 위험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해 연준 위원들의 노동 시장 관련 우려는 줄어든 것으로 평가. 다만 물가 안정에 대한 상방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으며 몇몇 참석자의 경우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연방 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인상할 근거가 있음을 언급했음. 이는 연준 내에서 노동시장과 경기 둔화에 대한 위험보다 인플레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더 주요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날 회의에서 금리는 동결됐지만 위원들은 AI 투자 확대에 대한 강한 수요와 높은 에너지 가격, 관세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추가 긴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의견을 모음.

결국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은 유가를 매개로 인플레 지속 확대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중동 정세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최근 이란과 미국 간 휴전이 유지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정상화 수순을 밟았고 이에 국제유가도 전쟁 이전 수준까지 하락. 다만 이번 주 들어 관련 군사적 긴장감이 재차 고조되며 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이는 연준의 긴축적 정책 경로에 대한 전망에 힘을 실으며 위험자산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특징종목

반도체주 반등

전일 고점 경계감에 일제히 하락했던 반도체주는 대체로 반등. 최근 실적 발표 이후 고점 대비 시총 25% 이상이 증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11%)가 50일 이동평균선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하며 반등했고, 브로드컴(+4.83%)은 애플(+0.88%)과의 300억 달러 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 내에서 150억 개에 달하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오름폭 확대. 엔비디아(+3.65%)는 중국 당국이 최근 몇 주 사이 알리바바(+11.04%)와 바이트댄스, 덤시크에 조만간 일부 H200 칩 구매 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전달했다는 디 인포메이션의 보도 이후 강세. 엔비디아는 이미 지난 3월 미국 정부의 일부 칩 수출 허가과 중국 당국의 승인을 득한 바 있으며 이번 보도가 사실일 경

우 양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온 H200의 대중국 판매가 실제 구매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임. 이외 쉘컴(+1.96%), 온 세미컨덕터(+2.95%), 샌디스크(+6.77%), 웨스턴 디지털(+3.42%), 시게이트 테크놀로지(+3.91%), 램 리서치(+2.15%), KLA(+2.18%),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2.88%) 등 반도체주 전반이 상승세로 마감. 이에 전일 4% 대 하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2.23% 반등했고, SMH(+1.99%), SOXQ(+2.24%), DRAM(+2.39%), DISK(+3.78%) 등의 반도체 관련 ETF도 상승.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이날 아마존닷컴(-0.96%)과 알파벳(-1.39%), 마이크로소프트(-1.41%)와 오라클(-0.78%) 등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본지출을 지속하고 있어 이들의 향후 12개월 기준 잉여 현금 흐름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봄. 다만 엔비디아(+3.65%)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11%), 브로드컴(+4.83%)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2.88%) 등의 반도체 기업들은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은 잉여 현금 흐름 급증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

다만 골드만삭스는 AI 자본 지출과 연계된 대규모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가까워졌다고 본다며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방대한 AI 인플라를 보유하고 있어 여전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함.

반도체주 반등에 따른 반작용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 관련주는 약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1.60%)는 이날 하락으로 지난 6월 말 엔비디아와의 협력 발표 이후 이어진 7거래일간의 상승세를 멈춤. 세일스포스(-1.73%)는 국가 안보 부문의 미국 공군 차량 현대화 사업 선정 소식에도 하락권에 머물렀으며 워크데이(-4.02%), 오라클(-0.78%), 서비스나우(-2.66%) 등도 약세. 포티넷(-1.24%)과 펠로 앨토 네트워크(-4.88%), 크라우드스트라이크(-1.80%) 등의 사이버 보안주도 일제히 하락. 소프트웨어 대표 ETF인 iShares Expanded Tech-Software Sector ETF(IGV)(-1.75%)도 하락.

유가 상승

최근 국면에서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전통 산업군이 대체로 하락해 이들 비중이 높은 다우지수 낙폭이 컸음. 존슨 앤드 존슨(-1.44%), 비자(-1.33%), 프록터 앤드 갬블(-2.85%), 홈디포(-2.61%), 머크(-2.23%), 맥도날드(-1.40%), 보잉(-2.90%), 허니웰(-2.08%), 3M(-2.09%) 등이 다우지수 하락을 주도.

유가가 상승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자 호턴(-4.63%), 풀티 그룹(-5.37%) 등의 금리에 민감한 주택 건설 관련주도 약세.

항공주와 크루즈주 등 유가 상승을 직접적 비용 부담으로 인식하는 업종군도 약세. 델타 에어라인스(-1.51%),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1.63%),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1.56%), 카니발(-3.90%), 노르웨이저니 크루즈라인(-1.91%).

다만 유가 상승은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에너지주 강세 요인으로 작용. 셰브론(+1.13%),

EOG 리소시스(+2.27%), 코노코 필립스(+2.10%), 옥시덴탈 페트롤리엄(+3.70%).

이외 특징주

프랑스 경쟁당국은 메타 플랫폼스(-2.02%)에 대해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 계획을 제시하고 프랑스 언론 단체들과 협상을 재개하도록 명령함. 이는 소셜 미디어에 게재되거나 AI 학습에 활용된 콘텐츠 사용을 둘러싸고 언론가사와 빅테크 기업 간 잇따르고 있는 법적 분쟁 중 하나.

나토 정상회의에서 터키가 록히드마틴(-1.39%)의 F35 전투기와 GE(-2.98%) 에어로스페이스의 F110 엔진을 자국 5세대 전투기 카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록히드마틴 뿐 아니라 RTX(-2.96%), 노스롭 그루만(-0.72%) 등 방산주 투자심리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을 포함한 미국 방산업체들에게 신규 공장 건설을 지시함.

블룸 에너지(-5.67%)는 공매도 업체 헨터브룩이 보고서를 통해 공급망과 생산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급락. 장 중 12%까지 하락하기도. 보고서는 블룸에너지 연료 전지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스칸듐 공급망이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 2025년 2월 블룸에너지 최고 경영자는 중국 공급망이 없으며 스칸듐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

전날 7500만 달러 규모 신주 발행 계획 발표한 리비안(+1.03%)은 전일 급락을 딛고 소폭 반등.

골드만삭스가 투자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한 배스 앤드 바디 워크스(-5.97%)는 하락

에스티 로더(-3.13%)는 구조조정 비용이 당초 예상치보다 2억 달러 가량 증가할것으로 보인다고 공시한 이후 비용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로 하락.

메타의 AI 클라우드 사업 검토 소식에 급락했던 네비우스(+10.91%), 코어위브(+7.75%), IREN(+8.01%) 등의 이른바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은 일제히 반등.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우려..WTI 4.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과의 협상 중단 시사 발언에 국제유가는 급등. 트럼프 대통령은 NATO 정상회담 참석 직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는 끝난 것 같다” 그들은 쓰레기”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감. 이에 오름폭을 확대해 한때 7% 이상 급등하던 국제유가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매우 빠르게 끝날 것”우리는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발언의 수위를 다소 완화하자 오름폭을 축소. 한편 이란 국영 방송 등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보도해 원유 공급 불안

정에 대한 우려를 다시 높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37% 상승한 배럴당 73.52달러에 마감, 전일 배럴당 70달러선을 넘어선데 이어 추가 상승함. 브렌트유 9월물도 6% 이상 상승해 배럴당 78달러선에 마감.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유가 상승은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이틀 연속 금가격 하락 요인이 됨.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2% 내외 하락해 트로이 온스 당 4,080달러대에 거래. 은값은 4%대로 더 큰 낙폭을 기록하며 온스당 58달러선까지 미끄러짐.

채권금리 이틀째 상승

유가 상승에 국채 금리는 이틀째 전 만기물에서 상승세를 보임(가격 하락). 다만 국제유가가 장 중 고점 대비 오름폭을 줄이면서 국채금리 역시 상승폭은 다소 축소. 이날 공개된 연준의 FOMC 의사록에서 몇몇 위원들이 금리 인상 검토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도 금리 상승 재료. 다만 금리 인상 의견이 다수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사록은 대체로 예상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던 평가.

2년물 국채 금리는 3.3bp 상승한 4.2181%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2.8bp 상승한 4.5792%를 기록. 30년물 국채 금리는 1.6bp 상승해 5.0721%를 기록.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장 중 지난 5월 말 이후 처음으로 4.6% 선을 상회.

이날 미 재무부는 10년물 국채 390억 달러 규모 입찰에 나섬. 발행 수익률은 이전 입찰에 비해 4.2bp 상승해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인 4.580%를 기록했지만 발행 전 거래 수익률에 비해서는 낮았고 응찰률은 전달에 비해 약간 높아져 수요도 양호했음.

시카고상품거래소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이번달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약 30% 내외로 전장 대비 소폭 높여 반영. 9월 인상 가능성도 68% 가량으로 상승.

달러 포함

다만 달러 가치는 소폭 하락하기도 하는 등 보험권에 머물렀음. 뉴욕장 들어 상승세를 유지하던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장기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약세 압력을 받음.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01.041로 전일 대비 0.02% 상승을 기록.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1,498.50원에 마감했으며 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00원)를 고려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7.40원 상승한 1,504.90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